

“삼성 새만금 투자협약 ‘정치적 쇼’”

▶ 도의회 조사특위, 6개월 활동 결과 발표

“LH유치 무산에 대한 민심 달래기용... 증인들은 ‘모르쇠’
협약 주도한 것은 전북도와 삼성이 아닌 총리실
LH 경남 유치로 격양된 전북 민심 가라앉히려는 의도”

전북도의회는 삼성그룹과 새만금 투자협약(MOU)에 대해 “LH유치 무산에 대한 민심 달래기용으로 보여지는데, 출석한 증인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해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더 ‘정치적인 쇼’였다는 확신을 갖게 만들었다”고 제기했다.

16일 ‘전북도의회 삼성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는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개월간 삼성의 새만금 투자협약에 참여한 김원주 전 도지사와 정현을 전 행정부지사 등 핵심 당사자들을 증인 신문하고 국무총리실과 삼성을 방문해 면담한 결과를 종합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사특위는 또 이 협약을 주도한 것이 전북도와 삼성이 아니라 총리실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특위는 “총리실이 이 협약을 주도한 것은 동남권 산업형 무산으로 민심이 요동치는 경남에 전북 이전 예정이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는 대신 정부의 미움을 받는 삼성을 압박해 전북에 투자 MOU를 체결해 (전북) 민심을 무마하려는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하기로 예정된 LH가 경남으로 옮겨가자 전북도가 자사가 사발하고 연일 도민결기대회가 열리는 등 역시 극도로 격양된 전

북의 민심을 가라앉히려 ‘삼성 투자’ 카드를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투자협약에는 극소수 인원 참석, 7조6,000억원을 투자하는 삼성의 허술한 투자계획서, 총리와 삼성 대표 등 핵심 인사 MOU 불참, 협약 이후 후속 조치 전무 등의 부실성을 꼬집었다.

삼성에는 2011년 전북도, 총리실 등과 새만금에 7조6,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투자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아무런 계획을 밝히지 않다가 5년이 지난 작년에서야 투자 포기를 선언했다.

사실 새만금 방조제안으로 드넓게 펼쳐진 바닷물에 삼성이 투자한다는 것이 믿기 힘든 현실이었다.

기반조성만 하려 해도 전문학적 자본이 들어가는 것은 현장에 가보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특위는 “수사권 등 강제력이 없어 증인은 물론 총리실과 삼성에 대한 조사가 어려웠고 오래된 사안이라서 자료가 거의 없는 탓에 사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특위가 진실을 명확히 밝히지는 못했지만, 당시의 정황과 일부 사실이라도 밝혀냄으로써 도민이 삼성의 투자협약 전반에 대한 진실에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붉노랑 상사화’ 핀 마실길
16일 부안군은 서해바다 해넘이의 명소로 활용한 풍경을 선사하는 마실길 제2코스의 ‘붉노랑상사화’가 꽃망울을 터뜨려 오는 19일부터 절정에 이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붉노랑상사화가 핀 부안 마실길을 걷고 있는 관광객들의 모습. <관련기사 8면>

문 대통령, 세월호 피해가족 면담

“정부 대표해 머리숙여 사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생존자와 피해가족들을 만나 “늦었지만 정부를 대표해서 머리 숙여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30분 청와대 영빈관에서 세월호 피해자 및 가족 232여 명과 2시간동안 만나 이같이 말하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다운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서 세월호 희생이 반드시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 피해가족과 만나 눈물을 흘리면서 인사하는 동안 목소리가 떨리기도 했다.

행사 시작 전 모두발언서
세월호 진상규명 상태 지적
“정부, 국회와 함께 최선”

문 대통령은 행사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선체 수색이 많이 진행됐는데도 아직도 다섯 분이 소식이 없어서 정부도 애가 탄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들이 모두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가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마지막 한 분을 찾아낼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희생자 수습을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가족들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3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세월호를 내려놓지 못하고 가슴 아파하는 이유는 미수습자 문제 외에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도대체 왜 그렇게 여처구니없는 사고가 일어났던 것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부는 사고 후 대응에 왜 그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했던 것인지, 그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는 동안 청와대는 뭘 하고 있었던 것인지, 너무나 당연한 진상규명을 왜 그렇게 회피하고 외면했던 것인지, 인양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 이유는 무엇인

지, 국민들은 지금도 잘 알지 못하다”면서 3년 넘게 해결 기미가 안 보이는 세월호 진상규명 상태를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가족들의 한을 풀어주고, 아픔을 씻어주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다시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그런 마음으로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정부가 국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이든 정부는 참사를 막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선체 침몰을 눈앞에서 뻔히 지켜보면서도 선체 안의 승객을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을 정도로 대응에 있어서도 무능하고 무책임했다”면서 “유가족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지도 못했고, 오히려 국민들을 편 가르면서 유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주었다. 정부의 당연한 책임인 진상규명마저 회피하고 가로막는 비정당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 정부의 미흡한 사태 수습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다. 늦게나마 마련된 이 자리 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을 주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현장에 참석한 세월호 피해 가족들에게 발언을 부탁했다.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피해가족을 대표해 “무엇보다 4·16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응당한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불법 부당하게 자행한 수사 방해와 은폐 조작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강력한 법적 조사기구가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국가 차원의 조사기구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재건을 촉구했다.

아울러 4·16 안전공원의 건립과 4·16 재단 설립도 요청했다. /뉴스1

‘살충제 계란’ 파문... 도, 산란계 농장 살충제 전수검사

부적합 농가 있을 경우 계란 껍질에 표시된 농장고유번호 밝히기로

전북도는 경기도 소재 산란계 농장 계란에서 피프롤닐 살충제가 검출됨에 따라 도내 모든 산란계 농장에도 해당 살충제 성분 검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피프롤닐 살충제는 닭에서 사용 금지되어 있으며 개 고양이의 비록, 진드기를 구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다. 농식품부가 지난 15일 0시부터 모든 농장의 계란을 출하 중지시키고 산란계를 사육하는 모든 농장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실시, 합격할 농장의 계란만 출하를 허용한 조치의 일환이다. 다만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8월7일

이후 피프롤닐 등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무항생제 인증 산란계 농가 및 지자체에서 8월1일 이후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농가는 유통이 허용되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 산란계 농장 118개소 중 27개소(전북도 9, 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 18)는 이미 검사를 완료하여 모두 음성판정 되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또한 무항생제 인증된 49개소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42개소는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동물위생시험소에 검사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만약, 검사에서 부적합 농가가 있을 경우 계란 껍질에 표시된 농장고유번호를 밝힐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산 계란이 안전하게 생산 유통될 수 있도록 검사를 신속히 진행 하도록 하겠다”며, “계란껍질에 숫자 12가 표시되어 있는 것은 전북산으로 도내산 계란을 많이 소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올 여름도 믿고 찾는 단풍미인쇼핑몰

단풍미인쇼핑몰은 정읍시에서 100% 품질을 보증합니다.



미숫가루















단풍미인쇼핑몰은 정읍시에서 100% 품질을 보증합니다.

365일! 100% 무료배송
택배비 100% 지원(정읍시청)
회원가입 후 구매시 적립금 2% 지급
매주 1일 특가 할인 이벤트 진행

모든제품 100%
전국 어느 곳이나 **우체국 택배**로 **무료배송**

네이버, 다음에서 단풍미인쇼핑몰을 검색하세요!

<http://danpoongmall.jeongeup.go.kr>

문의 전화 : 080-535-4345(무료), 063-532-4345